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_053)250-3048~9_ <http://www.daegujobo.or.kr>



한티영성관 성당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 오늘의 전례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마태 13,44-52 참조)

우리가 만약 보물을 발견한다면 가진 것을 다 팔겠습니까? 아마도 연금이며 집 등은 남겨두고 처분해도 크게 위태롭지 않은 것만 팔 것입니다. 보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보물이 좋기는 하지만, 다른 것들도 아직은 양보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뜻뜻미지근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는 “현세에서 100배”(마르 10,30)라는 이문을 약속하셨습니다.

제1독서 1열왕 3,5-6 7,7-12 **제2독서** 로마 8,28-30 **복음** 마태 13,44-52

입당송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화답송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다.

영성체송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모든 것을 처분하고, 대출도 받아...

노광수 그레고리오 신부 | 도원본당 주임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샀습니다. 그 밭은 시골이 아닌 도시 한 가운데 땅이었지만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이유로 시세가 평당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밭이 700평이었으니까 3억 5천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돈은 없었기에 100평만 사려 했지만 밭주인은 분할해서는 팔지 않으려 했습니다. 더구나 주인은 그 땅은 곧 자연녹지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평당 5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그 값은 3억 5천이 아닌 5억 6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던 아파트를 내놓았고,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았지만 밭 값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형님, 누님들에게 빌다시피 자신이 사려는 땅을 담보로 빚을 내어 그 밭을 샀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그 밭을 산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들과 그 포도밭에서 포도를 먹다가 그 밭 구석진 화장실 뒤편에서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을 보았는데 밭로 툭툭 차보니 그것은 고가의 골동품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그 곳을 다시 흠으로 덮어두고는 가진 것을 다 팔고 빚까지 지며 그 밭을 샀고 그래서 너무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상이 오늘 복음 내용입니다.

그 밭의 새 주인은 그 보물들을 캐었는데 그 양은 두 가마니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어쩡니까? 그 골동품들은 전부 가짜였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허탈 그리고 기절초풍뿐이었습니다.

혹 우리는 지금 소위 짝퉁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1독서 말씀대로 만일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 하는 것만을 청하지는 않습니까? 주일학교에까지 보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의사나 판사가 되는 것이 정말 그들 인생에 있어 행복의 보물일까? “무엇을 바라느냐?”하고 물으실 때, 부자가 되기를 청하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의 보물일까? 높은 자리에 앉고 부를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 자신에게나 내 자식 인생에 있어 결코 최고의 행복 즉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보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짝퉁 보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없으니 가지고 싶지만 가져보면 그것은 결코 인생의 행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흠에서와 흠으로 사라질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은 하늘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제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모상이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어가는 일은 비참이 아니라 정녕 의롭고 영광스러운 것, 바로 진짜 보물임을 말해 줍니다.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얻으려는 보물이 허탈과 기절초풍을 맛을 짝퉁은 아닌지? 오늘 복음을 단순하게 읽고 지나치지 마시며, 다시 새기시고, 다시금 자신을 살펴 진짜배기 보물을 찾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⑭

정성이 담긴 말은 열매를 맺는다

안군심 리카르도(1774-1835)의 순교이야기

말하는 이의 목소리가 크지도 않고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귀에 쏙 쏙 들어온 적이 있는가? 말 안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정성이 담긴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러니 하느님을 전할 때는 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 정성껏 교리를 가르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삶이 성화된 순교자 안군심 리카르도를 아는가?

충청도 보령에서 태어난 그는 젊어서 천주교를 받아들였다. 그 후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고향을 떠나 경상도로 이주하여 교회 서적을 बे끼는 일에 몰두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본래 명랑한데다가 겸손하고 친절하였던 그는 누구나 애덕으로 대하였고, 천주교 교리를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다. 또 그는 자식들의 교육에도 정성을 다하였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와 묵상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으며 일주일에 세 번씩은 대재를 지켰다.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자신도 붙잡힐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 동안 교우들에게 필사하여 준 서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포졸이 그를 찾아내어 상주 관아로 끌고 갔다. 관장이 그에게 교리를 묻자 몇 가지 중요한 교리를 외우고서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설명하였다. 또 관장이 “국법을 어기는 것은 임금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하느님은 우주의 큰 임금이고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만물 위에 공경해야 합니다. 임금과 관장과 부모는 하느님 다음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어떤 형벌에도 언제나 끈기 있게 신앙을 고백한 그를 상주 관장은 대구로 이송시켜 더 혹독한 형벌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형벌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그의 몸은 비참하나 하느님을 향한 그의 사랑은 더욱 타오르기만 하였다. 사형선고 후 8년의 옥살이 동안 짚신을 엮어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남는 것이 있으면 자선을 베풀었다. 1835년 심한 이질을 앓다 옥사하였으며 나이는 61세였다.

순교자 안군심 리카르도님! 저희도 당신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쓰고 정성껏 전함으로써 하느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 **궤문**



안군심 리카르도
(1774-1835)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⑤

덕(德)이 있는 분을 왜 닮고 싶을까?

이재행 안드레아(1776-1839)의 순교이야기



이재행 안드레아
(1776-1839)

주위에 덕(德)이 많은 분을 알고 있는가? 그런 분을 보면 마음부터 푸근해진다. 누가 한 번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에게 덕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덕이란 좋은 습관이 몸에 밴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이 나오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를 덕이 있는 사람이라 한다. 순교자 이재행 안드레아가 그런 분이였다.

대구 감영의 옥에 갇혀 있었던 이재행 안드레아에게 사형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그는 매우 기뻐하면서 자신이 쓰던 물건과 옷을 다른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고, 동료들과 함께 형장으로 나가 참수당한 후 하느님 품에 안겼다. 그때 이를 바라보던 죄수들과 옥졸들은 모두 슬픔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그가 보여준 모범과 수많은 덕행들 때문이었다.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그는 20세가 넘어 천주교에 입교한 후 신앙생활을 위해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 후 오랫동안 이주생활을 반복하면서 가난하게 되었음에도 그는 남다른 부지런함으로 덕행을 쌓았다. 가난으로 인한 고통을 견딜 줄 알았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사랑할 줄 알았다. 때론 모욕을 참아내는 큰 인내심을 보여주었고, 말을 하고 행동할 때는 늘 신중하였으며, 가족들을 돌보고 가르치는데도 남다른 정성을 보여주었다. 그토록 많은 빛을 발하는 그의 덕행들을 본 사람들은 찬사와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1827년 정해박해가 일어나자 그는 경상도 순흥의 곰직이에서 체포되어 안동 관아로 끌려갔다. 참혹한 형벌에도 배교를 거부하며 곳곳이 신앙을 증거하였다. 대구로 이송된 뒤 더욱 혹독한 형벌에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감사는 달콤한 말로 여러 차례 유혹을 하였지만 그는 결코 신앙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사형선고를 받은 안드레아는 12년 동안 동료들과 모범적인 옥중 생활을 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로 다시 한 번 배교를 강요받았으나 끝까지 거부하였다. 그해 5월에 참수되자 포졸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예를 다하여 장사를 지내 줄 만큼 그와 그의 동료들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의 나이는 63세였다.

순교자 이재행 안드레아님! 저희도 당신처럼 빛나는 덕행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빌어주소서. **김민**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시련이 주는 열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 고통을 만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존 버니언은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천로역정'을 집필했습니다.
 파스퇴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프란시스 파크맨은 시력이 약해 종이에 커다란 글씨로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자였으나 축음기를 발명했고,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으나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게 의해 새로 쓰여 집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립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위인들은 인생의 위기에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시련을 '신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리는 사람입니다. **필문**

금주의 성인

7월 27일	성녀 나탈리아(순교자, 코르도바, 852년), 성녀 릴리오사(순교자, 코르도바, 852년) 성 아우렐리오(순교자, 코르도바, 852년), 성 에클레시오(주교, 라벤나, 532년) 성 첼리스트노 1세(교황, 432년), 성 판탈레온(의사, 순교자, 305년경)
7월 28일	성 나자리오(순교자, 68년경), 성 삼손(수도원장, 주교, 485~565년) 성 인도첸시오 1세(교황, 증거자, 417년), 성 첼소(순교자, 68년경) 성 빅토르 1세(교황, 순교자, 199년)
7월 29일	성녀 루칠라(동정순교자, 260년), 성녀 마르타(신약인물, 동정녀, 베타니아, 1세기경) 성 올라보(왕, 순교자, 노르웨이, 995~1030년), 성녀 플로라(동정순교자, 260년) 성녀 베아트릭스(순교자, 304년), 성 파우스티노(증거자, 스펠로, 4세기)
7월 30일	성녀 막시마(순교자, 304년), 성녀 올리타(과부, 순교자, 카이사레아, 303년경) 성 셴넨(순교자, 303년), 성 압돈(순교자, 303년), 복자 만네스(신부, 1230년경) 성 베드로 크리솔로고(대주교, 교회학자, 라벤나, 380~450년)
7월 31일	성녀 헬레나(과부, 스키프네, 1145~1160년), 성 이냐시오(신부, 설립자, 로올라, 1491~1556년) 성 제르마노(주교, 오세르, 378~448년), 성 칼리메리오(주교, 순교자, 밀라노, 190년) 복자 요한 콜롬비니(증거자, 설립자, 1300~1367년)
8월 1일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모리(설립자, 주교, 교회학자, 1696~1787년) 성녀 피데스(순교자, 2세기), 성녀 카리타스(순교자, 2세기) 성녀 스페스(동정순교자, 2세기), 성녀 알메다(동정순교자, 6세기경)
8월 2일	성녀 테오도타(순교자, 니케아, 304년), 성 스테파노 1세(교황, 257년)

대구대학교 공식 스마트폰 앱 1.1 버전 업데이트!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첫 번째 메이저 업데이트를 포함한 교구 스마트폰 앱 1.1 버전을 배포합니다.



업데이트 내용

1) 메인 메뉴 3종 추가

- ① 월간빛 - 빛잡지 기사 월별 검색
- ② 기도문 - 가톨릭 기도서의 기도문과
교구 인준 기도문 수록
- ③ 평화방송 - 실시간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청취(M-F 환경에서 청취 권장)

2) 교구사제 검색에 서품년도별 검색 기능 추가

3) 푸시알림 수신 기능 추가

4)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기능 추가

5) 서비스 문의 및 버그 신고, E-Mail 발송 기능 추가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학교 주소록 발간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학교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휴가는 즐겁게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구미지역밀알회 월례미사	7월 28일(월) 11:00 도량성당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8월 2일(토) 10:50 프란치스카눔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28일(월) 11:00 계산성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8월 2일(토) 11:00 대안성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7월 28일(월) 11:00 수성성당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8월 2일(토) 11:00 성모당
바나기기도회 월례미사	7월 31일(목) 14:00 삼덕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8.3(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문의: (02)924-3048

작은형제회 성소 캠프-놀자 1박 2일

기간: 8.6(수)~7(목)

장소: 부산 봉래동 성당

주제: 작은형제회 성소캠프 놀자 1박 2일

문의: 흥인기 요셉, (010)2324-3217

2박 3일 무료 치유 피정

기간: 8.1(금) 18:00~3(일) 15:00

장소: 청주교구성령쇄신봉사회(무료숙식)

출발: 시민회관 13:00

성서홈플러스 13:40

문의: (010)4006-6482 / (043)213-9103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8.2(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영광의 어머니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내적 여정 에니어그램 피정

기간: 8.8(금)~10(일)

문의: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회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남성 제249차 꾸르실료 일정 변경

변경 전: 8.14(목)~17(일)

변경 후: 8.21(목)~24(일)

문의: 254-4671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8.19(화)~20(수) / 매월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예수성심으로의 초대

기간: 8.30~31 / 9.27~28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길을 찾는 미혼 여성

신청: 예수성심시녀회, (010)2649-2045

교육 | 모집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좌 개설

개강: 9월 첫째 주

내용: 황종렬 박사의 5차원 영성수련

장경화 선생님의 부모-자녀 프로그램

(부모리더십/학습클리닉/칭찬프로그램)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5차원 전연학습코칭리더십 특별과정

기간: 8.2(토)~4(월), 대상: 초~대학 35명

장소: 경북청소년수련센터,

(054)436-0184

다음카페: 우아청 찰초 / 28만 원

문의: 살레시오수녀회, (010)3883-7004

ICPE선교회 새로운 복음화 학교

기간: 8.19(화) 20:00~24(일) 16:00, 5박 6일

장소: 수원 갯등이 피정의 집

인원: 선착순 40명

문의: (010)5522-3723

바오로딸 독서치료-행복한 책읽기

일시: 8.27부터(매주 수) 14:00~16:00

장소: 공평동 시내 바오로딸 서원

주제: 자아성장, 신앙성숙, 나를 찾아서

회비: 10주 12만 원

문의: 에반젤리나수녀,

(010)2658-5185

알아 두면 참 편한
계산성당 연도실

— 가톨릭 신자만을 위한 서비스
— 운구에서 발인까지 모든것
(장례절차/행정서류/성당에서 도와드립니다)

상담안내 | **256-2046**

24시간 상담가능/도움미·상담사 무료

30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랑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9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경일신경과·내과의원

- 뇌졸중(중풍)·치매 조기진단
- MRI, CT, 위/대장 내시경
- 건강보험검진, 공무원 **종합검진**

대표전화 053) **652-2525**
내당역 2번 출구 (홈플러스 내당점 맞은편)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상운(안젤로)**
승정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뢰박사/전문의로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반월당 대구학원 9층
☎ (053)257-8875
www.kisaneye.co.kr

행복한 재할·요양 병원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원목실 운영, 월례미사 봉헌

원목팀장 **김미형(요세피나)**
이범수(대견안드레아)

☎ (053)426-6000 (중구 보전소 옆)

참소중한당신 정신과
PSYCHIATRY CLINIC

"소중한 당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보살펴 드립니다."

우울증/불안/불면증/정신의학적 상담

원장 정신과 전문의 차 상 훈(다니엘)
TEL. 053)752-2351
동구시장 삼거리, 수성도서관 맞은편

행사 | 모임

15학년도 베드로관(소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생활, 학업은 무학고등학교(경북 하양 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9월 가나 피정

기간: 9.13(토) 14:00~14(일) 16:00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대상: 예비 부부(가나강좌 수료 대상자)
신청비: 1인 5만 원(1박3식 및 교재비)
문의: 교구 가정담당, 250-3114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연수

기간: 8.11~9.1(매주 월) 9:00~15:00(총4회)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비: 3만 원(중식제공)
신청마감: 8.1(금)까지
문의: 노인사목, 250-3076 / FAX 250-3078

초등학생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주말반)

기간: 8.9(토)~10(일) 9:00~13:00
장소: 계산문화관 1층 강당
내용: 재미있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봉사(교재비 5천 원 / 자원봉사활동8시간 인증)
신청: 2대리구 사회복지회, 744-5671

교육 | 모집

제6회 젊은이 음악 캠프

기간: 8.23(토)~24(일), 청통수련원
주관: 교구 청년국, 회비: 6만 원
대상: 13~35세 이하의 봉사자
인원: 80명(선착순 접수에 한함)
접수: 다음카페(DCCM) 참조

2014 여름방학 편편볼런티어 모집

기간: 8.13(수)~14(목) 13:00~17:00
장소: 1대리구청강당(계산문화관내)
내용: 초등학생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자원봉사활동인증 8시간)
신청: 426-7212(교재비: 5천 원)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신단원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매주 토 19:00
장소: 계산문화관 5층
자격: 음악을 사랑하는 가톨릭신자
참고: 성악전공 관계없음(오디션 필수)
문의: 송재용, (010)3352-8748

목마른 사람은 모두 대구성령봉사회로

철야기도회: 매주(금)22:00~(토)4:00
성령세미나(2박 3일): 홀수달 둘째주(금~일)
1일 대피정: 매달 셋째주(토)13:00~18:00

1박 2일 피정: 매달 넷째주(토)13:00~(일)16:00
문의: (054)954-0951

가톨릭근로사회관 8월영여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8.5(화), 월 3만 원
낮반: 탈출기, 루카(화, 금 10:10)
저녁: 탈출기, 사도행전(화, 목 19:1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은 잠언

지속적인성체조배회

기간: 8.8(금)~10(일)
내용: 현시, 조배, 강의, 참회, 면담성사, 안수
강사신부: 하성호, 송재준, 현익현, 변재홍, 정기모, 강혜경수녀
문의: (010)5493-1819

채용 | 안내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탯줄혈액) 기증
문의: 959-8883 / 940-712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ac.or.kr>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안내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대구대교구 원로신부님들의 삶을 들어보는 '임파라 사랑따라'를 방송합니다.(대구평화방송 홈페이지 다시듣기 가능)

8월 2일(토)	허연구(모이세) 신부
8월 9일(토), 16일(토), 23(토), 30(토)	이성우(야길로) 신부

※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광고 안내 (신자기업 우대)_문의: 251-2610 / 2621

삼성화학건설
옥상 우레탄 방수
주택수리 · 리모델링 · 칠
청구 053)627-7204
주택 010-6347-0778

since 1999
성모아이한의원
감기출입/성장(식육부진·수면장애)/아토피/야뇨
소아간질(경기)/틱·ADHD/발달장애
한의 학 박사
통국대한의학과 외래교수 **김성철(비오)**
대표전화 **1588-3386**
대구 범어역 3번 출구 애플타워 8F
서울 강남역 5번 출구 강남메디타워 4F

유방 · 갑상선 전문 **여의사**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KE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흠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일본성지순례
이라도, 나가사키 / 오이타, 유우인(4일)
※ 출발일 - 09월 24일(마감)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기여행 쥬얼레(유스티노)

스피치 Kim
스피치 김 **스피치김 교육**
스피치 김의 특별한 전략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프리젠테이션, 김시·취업 면접, 화술·화법
대상: 유치부~성인
스피치김 교육 본원(대백 프라자 옆) T.053)421-0213
NAVER 스피치김 교육 | 운영 김민지(사바나)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백두정형외과
http://baekduos.com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 검색